



광주호 생태공원 개방 15일부터 개방된 광주호 호수생태공원의 '수변생태관찰로'를 찾은 시민들이 관찰로를 거닐며 수생 식물들을 관찰하고 있다. 이 길은 기존에 설치된 관찰대 2곳과 전망대를 이어주는 것으로 총 길이는 480m이다. /위작량기자 jwi@kwangju.co.kr

“수천개 관정 폐공을 찾아라”

〈管井〉

나주혁신도시 지하수 오염 무방비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부지 내 지하수 관정에 대한 오염방지처리(폐공)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향후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사용해왔던 지하수 관정이 수천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관리주체인 나주시는 지하수 관정 수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시와 토지공사 등 시공사에 접수된 관정의 수는 각각 전남개발공사 226공, 토지공사 202공, 광주도시공사 164공 등 모두 592공에 달한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관정을 대부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방치되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파문된 숫자까지 합하면 혁신도시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은 수천 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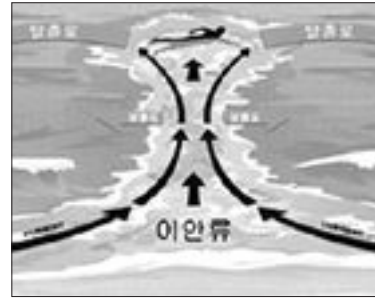
이모(55·나주시 금천면 동막리)씨는 “시공자들이 모터가 설치된 관정만을 인정하고 있어 동막리의 경우 기존 8개의 관정 가운데 1곳만 받아

고 있는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아 현장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감독관 입회 하에 시공에 나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지하수 관련법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리주체나 시공자들이 대응 공사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면서 “지금이라도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해수욕장 ‘이안류’ 비상

전남서 잇따라 발생... 익사사고도 속출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중 일부는 ‘이안류(離岸柳·Rip Current)’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구된다. 이안류란 해안에서 먼 바다쪽으로 치는 물속 파도로, 보통 1초당 1~3m의 빠른 속도와 50m의 폭으로 흐르며 바다 속에서 몸을 끌어당기는 느낌을 주는 조류다.



16일 서해해경청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주말인 지난 15일에만 전남지역 주요 피서지에서 2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이날 오후 3시께 장흥군 대덕면 신리 방파제 인근 바닷가에서 김모(55)씨가 익사한 채 발견됐고, 이에 앞서 오후 2시48분에는 광양시 옥룡면 한 계곡에서 고등학교 2학년 김모(17)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16일 오후 2시 20분께는 완도군 노화읍 해안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에쿠스 승용차가 운전부주의로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중 이모(여·47)씨 등 4명이 숨지고, 일행 1명은 구조돼 목포기독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올 8월들어 전남지역 주요 해수욕장에서 ‘이안류’에 휩쓸려

나원침 (7883) 김장동



故 최진실 유골함 도난

고(故) 최진실(40) 씨 유골함이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골함 도난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청은 16일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7시50분께 양평 갑산공원 분묘에 안치돼 있던 최 씨 유골함이 사라진 것을 공원 관리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양평=

탱크로리·승용차 충돌

5명 숨지고 2명 중경상

순천 울촌산단 교차로

광주의 한 고시학원 강사와 제자 등 5명이 피서를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순천 울촌산단 옆 교차로에서 탱크로리 유조차와 승용차 2대가 잇따라 충돌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4일 밤 10시50분께 순천시 해룡면 울촌산단 사거리에서 손모(29)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와 최모(43)씨가 운전하던 탱크로리가 정면 충돌했다. 탱크로리는 또 사고 충격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교차로에 막 진입한 임모(38)씨의 렉스턴 승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쏘나타 운전자 손씨를

비롯해 한모(60)·이모(23)·송모(33)·서모(31)씨 등 쏘나타에 타고 있던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탱크로리 운전자 최씨와 렉스턴 운전자 임씨 등 2명은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들은 광주의 한 공무원 고시학원에서 만난 강사와 제자 사이로, 지난 12일 광주에서 렌터카를 타고 여름 휴가를 보내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지점이 신호등이 점멸 중인 교차로이기 때문에, 쏘나타와 탱크로리가 교차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운전 등을 통한 시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동거녀의 행방을 말하지 않는다”며 애꿎은 동거녀의 지인을 둔기로 마구 때린 ‘무자비한’ 50대가 최고량

○“해남경찰은 16일 가출한 동거녀의 행적을 뒤쫓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주인을 폭행한 오모(54)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4일 낮 12시10분께 해남군 한 술집에서 이모(여·51)씨에게 ‘동거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추궁하던 중 둔기로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머리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 ○오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동거녀의 행방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 같아 화가났다’며 때늦은 후회. /해남=박희석기자 dia@

생활고·신병... 목사 등 자살 잇따라

16일 오전 11시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배모(50)씨가 발코니 천장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거녀 김모(57)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외출하고 돌아 왔더니(배씨)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배씨는 ‘죄송하다’는 짝막한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해 배씨가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 왔다는 동거녀 김씨 등의 진술을 토

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15일 오후 6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청평동 4수원지 인근 야산에서 광주 모 교회 목사인 김모(59)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아들 김씨(28)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의 아들은 “개척교회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신도 수가 적어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

마약 먹여 사기도박

전남경찰, 2천여만원 가로챈 50대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도박 상대에게 마약을 먹여 환각 상태에 빠뜨린 뒤, 수천만원의 돈을 딴 이모(여·53)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7시께 해남군 화원면 모 식당에서 김모(56)씨 등과 화투 도박(일명 ‘일남뽕’)을 하면서 김씨에게 필요

한 돈을 몰래 먹인 뒤, 공범 3명과 함께 승패를 조작해 2천350만원을 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가 환각 상태에서 갖고 있던 돈을 모두 잃자 손속시계를 저당잡는 등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화투를 치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들을 쫓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Advertisement for YHB (Young Heung Book)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and text promoting their services and products.

Advertisement for a book titled '분취첩서화' (Buncheongseohwa) by the author An Gung-seon. It includes a portrait of the author and promotional text.